

지역 소식통



부안군, 제70주년 재항군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부안군 재항군인회(회장 송영일)는 13일 부안향군회관에서 권익현 부안군수, 각 보훈단체장 및 향군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0주년 재항군인의 날' 기념행사를 가졌다.

행사는 향군의 다짐을 낭독하고, 향군발전에 공헌한 회원에 대한 표창에 이어 국가보훈에 대한 다짐을 결의하는 결의문 낭독으로 이어졌다.

송영일 회장은 기념사에서 "부안재항군인회 발전을 위한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안보의 2선에서 나라사랑과 평화의 마음을 굳게 다져 안보단 체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자"고 하였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선정

전북 고창군은 산업융합지원부가 주관하고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됐다. 13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총사업비 31억(국비 15억, 군비 12억, 자부담금 4억) 등이 투입된다.

2022년도에는 고창읍, 고수면, 신림면, 흥덕면에서 사업비 28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도 사업에는 고수면, 이안면, 성송면, 성내면, 부안면의 주택과 건물에 태양광 309개소, 태양열 26개소, 지열 13개소 등 총 348개소가 확정돼 내년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될 예정이다.

앞서 군은 사업 공모 신청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신재생에너지 설비 전문기업과 컨소시엄을 꾸렸다. 이후 수요를 조사하고 공모사업 신청 평가를 준비해 융복합사업에 선정됐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청년창업 지원사업

이달 31일까지 참여자 모집... 창업지원금 3년간 최대 1500만원 지원

정읍시가 창업문화 확산과 청년창업의 꿈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정읍시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022년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정읍시와 SK넥실리스가 지역사회 상생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고 추진하는 '정읍형 로컬 청년창업 패키지 지원사업' 일환의 프로젝트다.

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의 창업 활동을 지원하기 2024년까지 연차별 창업 및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청년창업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 제공을 통해 자립 능력이 취약한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데 도움을 준다.

관련해 시는 오는 31일까지 '2022년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예비 청년 창업자와 청년 기업을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정부나 시 주관의 창업 교육과 컨설팅 과정을 수료한 예비 또는 1년 안에 창업이 가능한 예비 청년 창업자다.

대표는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이어야 하며, 사업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정읍시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 창업자는 오는 31일까지 정읍시청 성장전략실을

방문해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청년 예비 창업자에게는 1년 차 사업장 공간구축과 리모델링 등을 지원해 창업 준비 시 어려움 해결을 도울 예정이다.

또 2~3년 차에는 운영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재료비와 임차료 등의 자금을 연 500만원씩 3년간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SK넥실리스는 창업 전 예비 창업자들에게 한시적으로 창업 공간을 지원하는 공유기계를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1호점에는 정읍분식, 2호점에는 정읍뽕까페가, 3호점에는 공유오피스가 24시간 상시 운영되고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가 주민 친화형 친수공간과 정읍 관광 명소 조성을 위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내장산과 정읍 시내 연결고리

정읍시, '정읍천' 친환경 수변공원 · 관광 명소 조성 '박차'

정읍시가 주민 친화형 친수공간과 정읍 관광 명소 조성을 위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지역맞춤형 통합하천 사업'에 지역의 주요 도심을 관통하는 정읍천을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 1차 관문인 전북도 심사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역맞춤형 통합하천 사업'은 환경부가 지자체와 함께 안전하고 깨끗한 친수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돼 온 치수 이수, 수질, 생태, 경관 등 다양한 하천 사업을 일원화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총사업비의 50%를 환경부가 부담하고, 20%를 도가 부담한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도 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균형 발전에 획기적인 기회가 될 전망이다.

이번 전북도 심사에서는 전북도 내

6개 시군이 신청한 가운데 치열한 경쟁 속에 정읍시 정읍천이 선정됐다.

시는 안전한 하천, 아름다운 하천, 즐기는 하천, 모이는 하천의 4가지 테마로 내장산과 정읍 시내를 연결하는 정읍천의 연결고리를 강화하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관광 명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정읍천이 오는 12월 최종 대상지로 선정되면 736억원 규모의 대규모 정비 사업을 거쳐 '정읍 관광 핫플레이스 통합하천'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심사에서 직접 발표자로 나선 최재용 부시장은 "정읍시가 추진 중인 정읍드림랜드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정읍 관광 핫플레이스 사업과 정읍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 사업을 연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내장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시내로 유인해 지역의 소득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군, 하반기 특별교부세 22억원 확보

백산성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4개

부안군이 행정안전부로부터 군민안전과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상반기 11억에 이어 하반기에는 22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부안군은 수차례 중앙부처와 국회를 방문해 재난 및 지역 현안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국가예산 확보활동을 펼쳤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 사업별로는 △(재난)백산성지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 5억원 △(재난)진리해안 율포방파제 방파공 설치사업 7억원

△(현안)계화면 농어촌도로 확포장 5억원 △(현안)제3농공단지 진입도로 구조개선 5억원 등 4개 사업에 총 22억원이다.

재난분야의 백산성지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사업은 붕괴위험지역을 정비하여 주택 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진리해안 율포방파제 방파공 설치사업은 우기철 만조시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완료시 인명 및 재산피해 방지에 큰 효과가 있을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현안분야의 계화면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계화리 잠금마을 진입로 포장으로 지역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며, 제3농공단지 진입도로 구조개선사업은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앞 농어촌도로의 선형을 개량하여 사고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각종 현안 및 재난사업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와 꾸준한 협의를 거쳐 국가예산 확보를 통해 열악한 재정여건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 · 노인복지관, 15주년 맞이 '복운축제' 진행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 · 노인복지관(관장 대원스님)이 개관 15주년을 맞아 13일 어르신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제15회 복운축제를 열었다.

행사에는 심덕섭 고창군수와 임정호 고창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대한불교 조계종 선운사복지재단 대표이사 경우스님, 이용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축하공연은 복지관 특화사업인 시니어모델 프로그램의 '한복 런웨이쇼'가 진행되어 풍성함을 더했다. 무료중식 후 2부 행사에는 선운밴드, 생활체조, 우쿨렐레, 한국무용 등 복지관 이용자의 열정과 끼를 마음껏 선보이



는 작품발표회가 진행됐다.

부대행사로 복지관 역사를 볼 수 있는 사진전과 차나눔터(백로다회), 풍선아트(그녀들의 꽃수다협동조합, 녹사마을), 교통안전홍보관(고창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다양한 체험 부

스가 마련되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어르신들의 활력있는 노후를 위해 사회·경제활동을 확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 · 노인복지관 관장 대원스님은 "지난 15년을 되돌아보며 한결같은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 동행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공로자 표창
△선운사복지재단 공로상=이대주, 소미숙
△고창군수 공로상=유영길, 이성진
△고창군의회 공로상=김정임, 전영애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읍, 주민자치센터 문예창작반 공모전 수상

부안읍 주민자치센터 문예창작반이 곁경사를 맞았다. 문예창작반 강사 배귀선(시인·문학박사) 씨와 수강생 전오영(시인·수필가) 씨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실시한 2022년 '아르코 문화창작기금 공모전'에 당선되어 각각 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특히 배귀선 씨는 시집 '점멸과 침묵 사이'가 2022년 상반기 아르코 문화 나눔 우수도서'에 선정되어 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은 바 있으며, 같은 해에 한 사람이 다른 장르인 시와 수필 부문서 수상 한 사례는 드문 일이다.

아르코문화창작기금 공모사업은 전국의 작가를 대상으로 문학작품이 뛰어난 우수 작가의 집필 및 작품집 발간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문학작가 창작 활동을 활성화하고 한국문화 대표작품 확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집필이 완료된 책 한 권 분량의 작품 원고를 심의 대상으로 한다.

선정된 작품은 "깊은 성찰을 보여주고 있었으며, 작품 면면이 틀에 박힌 시각이 아니라 낯설게 하기를 통해 일상을 새롭게 재구성한 글"이라는 평을 받았다. /부안=김석진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